

불법(佛法)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다

1. 신앙과 과학은 모순되지 않는다

뉴턴의 일생은 자신의 신앙이 있었고 맥스웰은 경건한 신도였다. 우주는 그야말로 방대하고 복잡하고 실증과학은 고유의 국한성이 있으며 사람의 지력과 관찰능력은 국한성이 있고 실증과학 이론은 우주의 산생원인을 해석할수 없다. 하지만 종교신앙에서는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도리를 알려주고있다. “신”의 존재에 대해 과학은 증명할수 없고 부정도 할수 없지만 신앙에서는 합리하게 해석할수 있다. 뉴턴 등 대과학자들은 보통 사람을 초월한 더욱 더 많은 지혜로 자신의 관념을 타파하고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것을 이해했고 과감히 신앙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인식했다. 지난 80 년대에 중국과학계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전통문화와 과학을 발굴하기 시작하여 인체 과학연구기구를 세우고 “인체 특이기능의 존재”를 입증했다. 전학삼은 홍콩기자가 채방할때 이렇게 말했다. 《인체 특이기능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해보려고 했지만 내 보기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과

학의 범위를 훨씬 초월했기 때문이다.》 《그가 진정한 과학혁명을 할때만이 현대과학체계를 타파하고 나중엔 과학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당대 서방의 매우 많은 과학자들은 모두 자신의 신앙이 있다. 그러므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내의 교육은 통치의 수요를 위하여 늘 이것을 대립시켜놓고 “과학”의 이름을 빌어 “사상통치”에 불리한 모든 “신앙”과 문화를 배척하여 사람의 사유를 속박했다.

현대과학은 세계를 탐색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물질표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연구한다. 기실 우주가 너무 커서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동한 력사시기에 모두 휘황한 문명이 존재했고 우주를 탐색하는 방법이 있었다. 력사의 변천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방법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더는 알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부동한 방법은 과학이 아니라고 할수 없다. 그 휘황한 문명으로 볼때 이러한 방면에서 현대과학을 훨씬 초월했다. (다음호에 계속)

홍타령 축전에서 표창을 받은 한국천국악단



지난 10 월 5 일, 20 여개 나라에서 온 무용 예술단체는 한국 천안시에서 거행한 대규모의 홍타령 축전에 참가했다. 한국 파룬궁학원들로 구성된 천국악단은 이 축전에서 고무격려상을 받았다.

폴란드가을자연의학박람회에서 파룬궁을 소개



지난 9 월 24 일부터 26 일까지 파룬궁학원들이 가을자연의학박람회에서 파룬궁을 소개하고 5 조공법을 표현하여 폴란드인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유럽기관의식기부대회기간에 중공의 죄악을 폭로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국 월스수부 카디부시에서 “유럽기관의 식기부대회”를 열었다. 이 회의기간에 파룬궁학원 생체에서 기

관을 적출한 중공의 죄악사실은 유럽기관의식협 조조직과 각 나라에서 대표로 온 기관의식전문가, 학자, 월스매체의 고도의 중시를 받았다.

유럽에서 온 각 나라 대표들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러한 폭행에 대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랐으며 이러한 죄악은 전체 기관의식령역에 대한 모독이고 인류존엄에 대한 유린이라고 인정했다.

포르투갈 카부랄병원 기관의식중심의 바로스선생은 《중공의 생체기관의를 나치스행위이다.》라고 규탄했다.

덴마크 기관의식중심의 룡나스녀사는 《각 나라에서 기관을 의식하자면 몇년동안 기다려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관의식규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윗 사진)



연길시"610"두목 마소옥의 악행

“610 사무실”은 중공 강택민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1999년 6월 10일에 특별히 세운 불법조직이며 나치스 게슈타포(盖世太保)와 흡사하다.

연길시"610"두목 마소옥(马绍玉)은 매년 한 두차례 세뇌반을 꾸리고 직접 획책하여 파룬궁학원들을 랍치하며 가도, 사회구역, 단위의 악인들을 한데 묶어 파룬궁학원들을 감시하고 로교소로 보냈다. 근년에 그는 국보대대, 각 파출소를 사촉하여 “민감일”이 오거나 “엄하게 타격”하라는 지시가 내리면 더욱 발광적으로 파룬궁학원들을 랍치하고 리봉운, 신전회 등 파룬궁학원들을 불법판결하는데 직접 참여했으며 10여명 파룬궁학원들이 박해로 세상뎠다.

종이공예작품 《진상은 중화대지에 퍼지다》



사흘만에 나타난 기적

2001년에 나의 동생은 걷지 못하게 되자 46세로 “내부퇴직”하게 되었다. 성급병원에 가 검사해보니 그의 소뇌에 세점의 피자국이 있었다. 의사는 나의 동생이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마비가 오니 당장 입원하라고 말했다. 나는 동생에게 “파룬따파가 좋다.” “쩐싼런이 좋다.”라고 진심으로 외우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3일 동안 외웠더니 과연 기적이 나타났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물을 마신후 복도에서 왔다갔다 걸어다녔다. 이 광경을 본 의사선생은 깜짝 놀랐다. 출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진상을 알게 되어 당, 단, 대 조직에서 퇴출했다. 그의 몸은 점점 건강해져 지금은 50근짜리 쌀마대를 메고 6층으로 올라갔다. 나의 동생은 사부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홍콩에서 8천만 용사들이 중공에서 퇴출함을 성원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 8천만 용사들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퇴출함을 성원하는 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했다.